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 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희망의 순례자들

학생 견진성사 미사



지난 10월 28일 (화) 저녁 6시 30분 로바디 주교님의 집전으로 21명의 학생 견진 성사 미사가 있었습니다. 주교님의 공식 방문인 학생 견진 미사에 많은 신자분들이 참석하여 견진 성사의 은혜를 함께 하였습니다. 새롭게 주님의 아이들로 다시 태어난 학생들의 앞날을 다같이 기도하고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견진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소감을 함께 수록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견진성사를 받게 되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8학년 때 저를 견진성사 주셨던 로바디 주교님께서 제 아들을 견진 시켜주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받고 있다는걸 또 다시 느낄수있는 아주 특별한 미사였습니다.

학생들이 무사히 견진 수업과 마음가짐을 잘 준비할수있게 도와주신 로사리오 선생님 그리고 잼마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적으로 많은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배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 견진 받은 학생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하느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계속 걸을수있게 신자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 구아름 데레사

이번 견진교리를 함께 하며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제게 큰 은총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고,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리를 준비하면서 가르친다는 것보다 오히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과 깊은 마음을 통해 저 자신도 신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됐고, '하느님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견진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함께해준 아이들이 참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힘을 받아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에게 이 길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과 배신부님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혜경 잼마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오늘날의 순교의 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여덟 가지 참된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뜻합니다. 겸손하기에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게 되지요.

우리는 살아가며 엄청난 슬픔을 겪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삶의 깊은 면을 통찰하고 주님의 참 뜻을 깨우치기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권리보다 의무를 앞세우며 복수마저 주님께 맡깁니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을 절실하게 찾으며, 주님 뜻에 따라 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올바르고 일하는 동기가 순수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순교의 길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신앙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시련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과 일치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을 지내며 성인들의 모습을 닮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성인이라 하여 모두가 하느님 계명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수한 것도 아닙니다. 뒤늦게 회개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삶에서 가난한 마음을 지니고, 고통을 통해 주님의 뜻을 새롭게 깨우치면서 주님을 절실하게 찾은 분들입니다. 자신을 단련해 가면서 하느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닮아 가려고 노력한 분들이지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때 성인들처럼 하느님과 일치할 것입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로고스 라파엘 청년 행사



지난 10월 25일, 토요일에 로고스와 라파엘 청년들이 지속되고있는 친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킹스도미니언 놀이공원에 다녀왔습니다. 9명의 청년들이 함께한 이 이벤트는 청년들이 놀이기구를 함께 즐기며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친목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청년회에 입회하지 않은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교리 상식]

위령 성월이란?

위령 성월은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교회는 11월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특히 11월 2일은 '위령의 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998년 글뤼니 수도원에서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널리 퍼지면서 11월이 위령성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교황 비오 9세, 레오 13세, 비오 11세가 위령 성월에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위령 성월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도 죄에 따른 벌, 곧 잠벌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대사는 교회가 정한 조건을 채우면 모든 잠벌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 해에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모든 가톨릭 교회의 위령 성월 전대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1일 부터 8일까지 적용되며 1) 고해성사를 하고, 2) 영성체를 해야하며, 3)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매일미사 책 첫장). 4)묘지를 경건히 참배하여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5) 성당, 경당 그리고 교구장이 정한 장소에 경건히 방문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쳐야 합니다.

견진성사 소감

저에게는 이 견진 성사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를 방과 후 힘들고 피곤하다는 아이들을 어루고 달래며 데려가야하는 고난의 길 같았습니다.

견진을 치뤄내야하는 행사처럼 느끼며 바쁘게 견진식을 위해 일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제가 미사가 시작되고 주교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 보는데 견진성사를 받는 이 아이들을 위해 주중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많은 신자분들과 견진 미사 성가를 준비해 준 많은 성가대원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청년들, 그리고 오케스트라 학생들, 미사 집전해 주신 주교님과 신부님 그리고 복사단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이 아이들의 견진성사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있는지를 보니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빛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며 이 성사가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큰 은총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견진식 때는 나도 꼭 다시 견진미사 참석해서 다음 견진 받을 아이들과 함께 이 가슴벅찼던 은총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 날 와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 조수경 세실리아

찬미 예수님!

“나 아버지께 구하면 협조자를 보내시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요한 14: 15-16)

세례성사로써, 이미 성화적 은총 안에서 덕과 성령의 선물을 받은 2025 견진 대상자 학생들은, 이제 주님의 몸인 성교회의 축복과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인 가정 공동체와 더불어 견진성사로써 입문성사를 완수하고 신앙의 제 2 신비전달 “완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로마에서 개최 될 카톨릭 세계 청소년 대회를 앞두고, 초대 교회때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두려움과 초조함에 머뭇거리던 제자들을 성교회의 12 완벽한 초석을 이루게 하시어, 주님이 “진리의 사도”로써 성교회를 영원히 이끌게 하신 주님 권능의 힘이, 2025 견진 학생들에게도 부여되시어 주님의 예언, 사제, 왕직에 훌륭히 참여 될 수 있는 “청소년 사도” 들로 이끄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견진 프로그램을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써 지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배 다니엘 주임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견진 교리 교사, 신 로사리아

CYO Rally 행사 참여



지난 10월 26일 일요일에 32명의 CYO 학생들과 8명의 선생님들이 알링톤 교구 Rally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교구에서 매년 고등학생들을 위해 여는 Rally 행사는 학생들이 주교님을 만나고 성체 조배와 강론 그리고 미사를 통해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찬양과 게임 등을 통해 친교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배신부님께서 학생들이 성당에서 떠나기 전에 강복 해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하시며 따뜻하게 배웅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하며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꽉찬 하루였습니다.

1. 2차 헌금 안내

다음 주일 (11월 9일)에는 미국의 군종 교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중 31주간 모임 안내

- 11월 2일 (일): 구역 봉사자 회의 (오전 11시 30분)
KofC (오전 11시 30분)
사랑의 울타리 (오전 11시 30분)

3. 연중 32주간 모임 안내

- 11월 6일 (목): 첫 목요일 미사와 성체 강복 (저녁 7시 30분)
- 11월 7일 (금): 십자가의 길 (저녁 6시 45분)
베드로회 형제 모임 (저녁 8시)
- 11월 8일 (토): 묘지 합동 위령 미사 (오전 10시 30분)
바오로회 자매 모임 (오전 10시)
- 11월 9일 (일): 86차 세례 성사 (교중미사중)
새 영세자 축하식 (오전 11시 30분)
단체장 회의 (오전 11시 30분)
꼬미시움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복사단 회의 (오전 11시 30분)

4. 사랑의 울타리 모임 안내

- 일시: 11월 2일 (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친교실 A-1
- 예비자들과 함께 친교 모임을 갖는 시간입니다. 세례받을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11월 4일 (화) 선거일 - 친교실 사용 금지

- 11월 4일 (화)은 버지니아 총선 선거일로 성당 친교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단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날 모든 모임은 하상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86차 예비신자 세례성사 안내

- 찰고/면담: 11월 8일 (토) 오후 5시
- 세례식: 11월 9일 (일) 오전 10시 미사중 (18명)
- 축하식: 11월 9일 (일) 오전 11시 30분 (A-1,2)
-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형제, 자매님들께서 신앙 생활을 잘 하시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7. 묘지 합동 위령 미사와 묘지 축복식

- 일시: 11월 8일 (토) 오전 10시 (신묘지 축복식)
오전 11시 (위령 미사)
11시 미사후 (구묘지 축복식)
- 위령 미사 장소: 페어팩스 메모리얼, 왼쪽 신묘지
- 11월 위령 성월에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우리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며 합동 위령 미사가 봉헌됩니다. 위령 미사 예물은 합동 위령 미사 전 미리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합동 위령 미사 관계로 새벽 6시 미사는 없으며, 저녁 미사는 예정대로 봉헌됩니다.

8. PTO 부모님들을 위한 수녀님 강의

- 일시: 11월 9일 (일) 오후 3시-4시
- 문의: 박예인 헬레나 703-755-5005
- 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9. 해리스버그 성당 돕기 사과 판매

- 해리스버그 성당 돕기 사과 판매합니다. 11월 10일 (월)에 해리스버그 성당에 가서 신선한 사과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사전 주문을 받습니다. 사과 구입 신청은 성모 회장님께 해 주세요.
- 신청: 성모회장 571-218-6962
- 신청 마감: 11월 9일 (일) 2시 미사 후까지

10. 고향 동산 묘지 축복식

- 일시: 11월 15일 (토) 오전 10시
- 고향 동산의 묘지 축복식을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11월 14일 (금)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5년 동중부 성령봉사회 일일 피정

- 일시: 11월 15일 (토)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 장소: St. Andrew Kim (메릴랜드 온리 성당)
- 참가비: \$20 (점심, 간식 포함)
- 강사: 이상훈 안토니오 신부
(동중부 성령봉사회 지도 신부)
- 신청 및 문의: 이혜원 요세피나 301-356-1585

13. 과달루페 성지 순례 안내

- 과달루페 성지 순례가 11월 18일 (화)부터 22일 (토)까지 있습니다. 주임 신부님의 성지 순례 일정으로 18일 (화) 저녁 미사는 없고 18일 (화) 새벽 6시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착오없이길 바랍니다. 성지순례 기간 다른 모든 미사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4. 성당 공사, 용역 소통방 초대 안내

- 성당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컨트렉터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독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11월 15일(토)까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연락처는 해당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시설 관련 공지 및 소통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등록 : PinKorean.com/con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아 703-627-1932



15. 동중부 지구 울뜨레아 미사

- 일시 : 11월 16일 (일) 오후 4시
- 꾸르실리스타로 어떻게 한해를 살아왔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도 될 수 있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꾸르실리스타로 잘 살아 주님께서 우리만을 믿고 세상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참 자녀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지구 울뜨레아에 모든 꾸르실리스타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간사 박기정 라파엘 703-862-0039
- 이날 오후 3시부터 친교실을 이용하실 수 없으며 저녁 5시 미사는 동중부 지구 울뜨레아 미사 관계로 없습니다.

16. 파티마 세계 사도직 33일 봉헌 신청 접수

- 접수 : 11/2 오전 8시, 오전 10시, 오후 2시 미사 후 (친교실)
- 준비 기간 : 11월 5일(수) - 12월 7일 (일)
- 봉헌식 : 12월 8일 (월) 저녁 7시 30분 (성당)
- 올해도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들 모두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어머니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봉헌식으로 인하여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 신앙인들이 뜨겁게 변화 될 것이고,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봉헌에 참여하여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합시다!

17. 함께 기도합니다.

- 11월달부터 모든 평일 미사와 주일 미사, 모든 미사 30분 전에 사제 서품 받으실 이동한 다니엘 부제님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는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18.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서한 필사본 전시합니다.

-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서한 필사하신 분들께서는 서한 필사집을 11월 23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서한 필서 전시 날짜는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9. 전신자 연도대회 안내

- 일시 : 11월 23일 (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 시상 : 1,2,3등 각 1팀, 4등 2팀, 등 5개팀 시상 외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대회 진행방법은 접수된 참여팀에게 개별 전달합니다.
- 11월 위령 성월에 연옥을 기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한국 가톨릭 교회의 전통인 연도 (위령 기도)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및 문의 : 구역담당 부회장 배성훈 디모테오 703-507-2492 (전화, 문자, 카톡)

20. 2026년 매일 미사 책 / 제대초 봉헌

- 2026년 개인이 사용할 매일 미사 책 신청을 성물부에서 받습니다.
- 1년 동안 성당에서 사용하게 될 제대초, 제병, 제주 봉헌을 받습니다. 주님 제단을 밝힐 제대초와 제병, 제주를 봉헌하실 분들은 성물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생활 정보 공유자 초대 안내

- 성당 교우들간의 생활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방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11월 15일(토)까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연락처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생활 정보 및 교우간 소통을 위한 안내에만 사용됩니다.
- 등록 : PinKorean.com/info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아 703-627-1932



22. 성당 홈페이지와 주보를 스마트폰으로

- 성당 홈페이지와 주보를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당 홈페이지를 QR코드로 만나보세요.
- 본당 주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대 앞에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핸드벨 연주곡 소개]

본당 핸드벨 팀인 마니 안젤리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일 10시 미사에서 2번 연주합니다.

- 11월 2일 연주곡: 성가 55장 착하신 목자 (Blessed Assurance)
- 곡해설 : 가톨릭 성가 55장 '착하신 목자 (Blessed Assurance)'는 예수님을 '착하신 목자'로 묘사하며, 예수님이 우리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보에 소식을 전해주세요!

- 주보에서는 본당에 있었던 소식들을 매주 기사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주에 있었던 주요 행사나 단체 소개, 알리고 싶으신 소식이 있으면 주보팀에게 연락주세요. 함께 만 들어가는 본당 공동체 주보를 위해 새로운 소식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이재훈 빅토리오 801-386-130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 사실 수녀라는 호칭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수사라는 호칭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성 수도자는 수녀 (sister), 남성 수도자는 수사 (brothe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도자”란 어떤 수도회의 회원으로 소속된 사람으로서 입회한 후 수련기를 마친뒤 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 수도회마다 창립 목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회는 겸손하고 청빈한 수도 생활을 추구하고 도미니코회는 설교중심적이며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는 의료봉사를 중시합니다.
- 그런데 수도회 소속이면서 사제품을 받아 사제로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 일단은 사제라도 수도회 소속이기에 신분은 수사입니다. 그리고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기에 신부라고 불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회 소속 신부님들을 “수사 신부 (수도 사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수도자가 부제로 서품된 경우 “수도 부제”라고 부릅니다.
- 최근에는 몇몇 남자 수도회에서 신부나 수사나 다 같이 “형제”라고 부르며, 외부에 나가서도 “수사”로 소개합니다. 어떤 호칭으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 교구 소속 사제의 호칭은 우리에게 익숙한 “신부님”이며 교회 행정 단위인 교구에 소속되어 담당 주교의 명에 따르고(순명) 정결하게 살아가겠다 (정결/독신)는 서약을 하지만 청빈 서약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도 서원과과는 다릅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10월 26일 (연중 제 30주일)

봉헌금	-----	\$8,074.00
교무금	-----	\$9,280.00
교무금 (신용카드)	-----	\$3,870.00
온라인 봉헌	-----	\$1,370.00
합계	-----	\$22,594.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11월 6일(목) 오후 5시 - 6시
2025년 11월 7일(금) 저녁 8시 - 9시
2025년 11월 9일(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미사강론 2. 가톨릭 뉴스
3. cpbc드라마: 땀의 순교자 탁덕 최양업 신부 1부
4. 가톨릭신문: 위령성월의 유래와 의미

교중미사 예물봉헌

11/2 이번주	페어팩스 3구역-3반
11/9 다음주	라우든 1반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